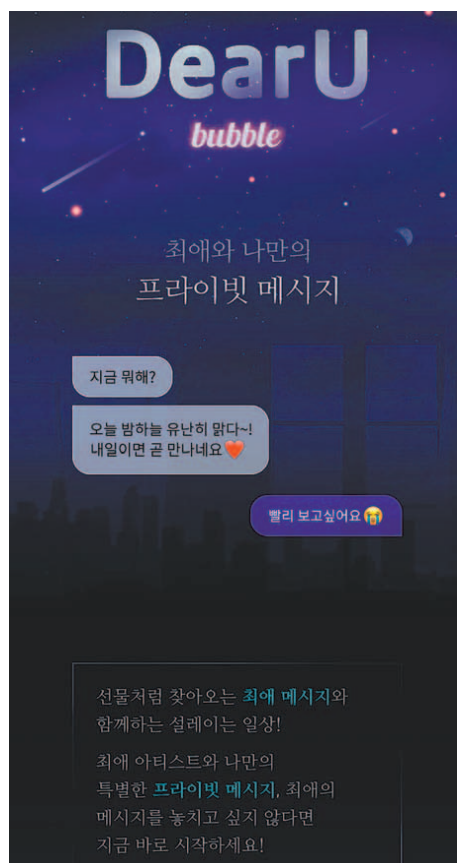


K팝 스타·팬 직접 소통... '버블'의 힘

엑소·슈주·있지 등 299명 스타 보유
SM·JYP 등 주주 참여해 신뢰 높아
상장하자마자 시총 '1조 클럽' 가입
해리스타서비스·NFT 등 진출 추진



신물처럼 찾아오는 **최애** 메시지와 함께하는 **실재**는 일상!
최애 아티스트와 나만의 특별한 **프라이빗** 메시지, 최애의 메시지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대표적 케이팝 스타들과 팬들이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팬 커뮤니티 플랫폼인 디어유의 '버블'. 이를 통해 엑소와 트와이스 등 굵직한 스타들이 주식시장에서도 위상을 과시하고 있다. (왼쪽 사진부터 시계방향으로) 뉴시스·사진제공 | 디어유·사진출처 | 엑소 SNS

팬이 컴백을 앞둔 그룹 엑소에게 인사를 건넨다. “엑소! 안녕?” 엑소가 답한다. “안녕! 지금 뭐해? 오늘 밤하늘이 유난히 맑다~!”면서 “내일이면 곧 만나네요!”라고 말한다. 팬은 “빨리 보고 싶어요!”라며 애절한 표정의 이모티콘을 보낸다.

엑소와 트와이스 등 케이팝 대표 스타들이 이처럼 팬들과 직접 소통하며 주식 시장에서까지 힘을 발휘하고 있다. 스타와 팬이 ‘프라이빗한’ 메시지로 직접 소통하는, 팬-아티스트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서비스 ‘버블’이 기반이다. 버블을 운영하는 글로벌 팬 플랫폼 기업 디어유가 10일 코스닥을 통해 주식시장에 진출한 가운데 첫날 ‘1조 클럽’에 가입하면서 스타들의 위상이 새삼 시선을 모은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디어유는 첫날인 10일 시초가(5만2000원)보다 27.88%가 오른 6만6500원에 거래를 마치고 시가 총액 1조원을 넘어섰다. 이를 깨인 11일 오후 현재 시가 총액 1조 3300억원에 달한다.

디어유의 핵심이자 주력 사업은 버블이다. 버블은 지난해 2월 출시 이후 8월 현재까지 299명의 아티스트가 120여만명의 팬들과 소통하는 무대이다. 엑소를 비롯해 슈퍼주니어·샤이니·에스파·NCT 127 등을 보유한 최대 기획사 SM엔터테인먼트와 트와이스·있지 등이 소속된 JYP엔터테인먼트, 씨엔블루·엔플라잉 등의 FNC엔터테인먼트 등 23개 기획사가 참여하고 있다. SM엔터테인먼트 자회사인 SM스튜디오가 최대 주주이며 JYP엔

터테인먼트 등도 주요 주주로 올라 있다.

이처럼 시장에서 신뢰성 높은 대형 기획사들의 참여와 대표적인 케이팝 스타들의 위상은 디어유의 향후 성장 가능성에 힘을 보탠다. 11일 주가가 전날보다 하락하면서 6만5700원에 장을 마감했지만 연예계와 증권가에서는 아직은 그리 어둡지 않은 전망을 내놓는다. 버블이 케이팝을 중심으로 한 스타들과 팬들이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라는 점에서 방탄소년단 등의 ‘위버스’나 브레이브걸스 등이 참여하는 ‘유니버스’ 등 스타들이 콘텐츠를 제공하는 또 다른

글로벌 팬덤 플랫폼과는 차별점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디어유의 공모주 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은 “각국의 언어로 번역이 가능해 아티스트도, 구독자도 언어 장벽 없이 쉽게 소통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스타와 팬이 1:1 채팅 방식과 “팬들과 엔터테인먼트사의 니즈에 맞춘 플랫폼을 유기적으로 운영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디어유는 “팬덤산업의 핵심 자원인 아티스트”를 더욱 확장할 계획도 밝혔다. 올해 하반기부터 해외 스타 서비스

를 선보일 예정이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축구)와 미국 메이저리그(야구) 및 프로농구 등 스포츠스타까지 영업할 계획이다.

최신 IT기술을 활용해 메타버스와 NFT(대체불가토큰) 관련 사업으로도 확장할 방침이다. 디어유 안종오 대표는 “현재의 팬 커뮤니티케이션 중심 사업구조에서 가상현실에서 스타와 팬이 소통할 수 있는 메타버스, NFT 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컨셉의 글로벌 팬 플랫폼도 가시화하면서 시장에 그 가치가 반영될 것이다”고 말했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2PM 이준호·옥택연, TV서 ‘집안싸움’

이준호, MBC 금토극서 정조대왕 역
옥택연은 tvN 사극서 암행어사 출두
로맨스 vs 코믹 매력 연기대결 불만

‘집승들’ 2PM의 멤버 이준호와 옥택연이 나란히 첫 사극으로 맞붙는다.

이준호는 12일부터 방영을 시작하는 MBC 새 금토드라마 ‘웃소매 붉은 굿동’에서 조선시대 왕 정조(이산)를, 옥택연은 8일부터 선보인 tvN 월화드라마 ‘어서와 조이’에서 암행어사를 각각 연기하며 경쟁한다. 비슷한 시기에 주연 사극 드라마를 나란히 내놓은 이들의 ‘집안싸움’이 시청자

호기심을 끌고 있다.

이준호는 정조가 세손이었던 시절의 이야기 속에서 당찬 성격의 궁녀 이세영과 애뜻한 사랑을 나눈다. 로맨스와 함께 궁내 권력다툼 등 다채로운 요소를 녹인 드라마를 통해 한 나라의 군주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그린다.

3월 전역해 안방극장에 복귀하는 그는 11일 온라인 제작발표회에서 “저의 색다른 모습을 보여줄 기회”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MBC ‘이산’(2007) 등 다양한 드라마와 영화에서 그려진 정조의 모습을 재해석하는 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준호는 “실존 인물이고, 앞서 많은 배우가 연기해



이준호

옥택연

사랑받은 캐릭터여서 부담감도 느끼지만 나만의 색깔을 추가하고 싶다”면서 “이를 위해 걸음걸이부터 젓가락질까지 모두 바꿨다”고 말했다.

이준호가 로맨스를 내세웠다면, 옥택연의 ‘무기’는 코미디이다. 열렬결에 어사가 돼 전국 팔도를 돌며 암행 감찰에 나서서

양반 자체 라인 역을 맡아 코믹한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남마주이 옷을 입고도 양반의 습관을 버리지 못해 주막에서 문전 박대를 당하는 장면 등 웃음 코드를 전면에 내세웠다. 덕분에 8일 첫 방송에서 5%대(닐슨코리아) 시청률을 견인했다. 조선시대에 흔치 않았던 ‘이혼녀’ 캐릭터 김혜운과도 각종 사건을 해결해간다.

5월 방영해 시청률 흥행에 성공한 tvN ‘빈센조’에서 극악무도한 악역을 연기했던 그는 이처럼 단순하고 코믹한 캐릭터로 이미지 변신에 나서고 있다. 옥택연은 “코믹과 사극 모두 도전”이라면서 “실제로도 ‘빙구미’(바보같이 순진한 매력)가 있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이를 잘 발휘해 ‘사극은 옥택연’이라는 칭찬을 듣고 싶다”며 당찬 각오를 드러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롯데 높은 명품브랜드 “웰컴, K스타”

구찌, 이정재·신민아 함께 모델로 발탁
루이비통, 정호연 손잡고 글로벌 마케팅
‘오징어게임’ ‘갯마을 차차차’ 인기 큰 힘

한국 스타들이 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타고 글로벌 브랜드를 대표한다. ‘오징어게임’과 ‘갯마을 차차차’ 등 한국 콘텐츠의 힘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게임’의 이정재와 정호연, tvN 드라마 ‘갯마을 차차차’의 신민아가 잇따라 명품 브랜드 구찌와 루이비통의 얼굴이 됐다.

11일 이탈리아 브랜드 구찌는 이정재를

글로벌 앰버서더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구찌는 그의 “카리스마 짙은 아이코닉한 스타일과 그만의 강한 정체성”에 높은 점수를 주었다. 그는 6일 미국 LA카운티뮤지엄(LACMA)에서 열린 ‘2021 LACMA 아트+펠름 갈라’에 연인 임세령 대상그룹 부회장과 동석해 눈길을 모았다. 미술과 영화 등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아티스트를 선정, 시상하는 행사에서 그는 마르코 비자리 구찌 CEO와 기념촬영을 하기도 했다.

신민아도 구찌의 글로벌 앰버서더로 나선다. 구찌는 신민아의 “우아하고 독보적인 스타일”을 매력으로 꼽았다. 그는 넷플릭스를 통해 ‘갯마을 차차차’를 전 세계에



이정재

신민아

선보여 글로벌 ‘많이 본 TV쇼(프로그램)’ 10위권에 올려놓았다. 드라마는 11일 현재에도 일본, 홍콩, 대만 등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10위권 안에서 순위를 지키고 있다.

‘오징어게임’은 9월23일부터 이달 7일까지 46일 동안 글로벌 1위를 차지했다.

극중 의상과 소품 등이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등 신드롬급 인기를 누리며 또 다른 주역 정호연에 대한 관심이 끌어올렸다. 이에 힘입어 정호연은 최근 루이비통의 글로벌 앰버서더로 발탁됐다. 2010년 데뷔해 샤넬 등 글로벌 브랜드의 모델로 활동했던 그는 ‘오징어게임’을 통해 연기자로 전향해 각광받고 있다.

이미 그룹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엑소의 카이 등 케이팝 스타들도 다양한 글로벌 브랜드의 글로벌 앰버서더로 활동해왔다. 또 각 브랜드와 콜라베이션 제품을 선보이기도 했다.

모두 드라마와 영화, 대중음악 등 한국 콘텐츠가 최근 몇 년 사이 아시아 한류를 넘어 전 세계에 전파돼 시선을 모은 힘으로 평가받는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연예뉴스 HOT 5

나훈아, 부산 서울 대구 등 대면 콘서트 투어



나훈아

가수 나훈아가 대면 콘서트를 연다. 11일 소속사 예아라에소리는 “나훈아가 12월10~12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펼치는 공연을 시작으로 ‘어게인 테스형’ 전국 투어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부산에 이어 12월17~19일 서울, 12월24~26일 대구 등에서 공연을 이어간다. 나훈아는 당초 올해 8월 부산 등에서 콘서트를 열기로 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가파른 확산세로 일정을 연기했다. 최근 ‘단계적 일상 회복’ 조치가 시행되면서 공연을 다시 열기로 했다.

유명가수, 청주→남양주 구급차 타고 공연장행

유명 포크가수가 공연을 위해 사설 구급차를 이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11일 YTN 보도에 따르면 1980년대 데뷔한 유명 포크그룹의 멤버 A씨가 10월30일 충북 청주에서 경기 남양주의 한 야외 콘서트장까지 사설 구급차로 이동했다. 토요일이었던 이날 3시간 넘는 거리를 사설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달려 1시간45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협일이 높아지자 서울 송파구의 대형 병원으로 이동하다 상태가 좋아져 공연장으로 행선지를 바꿨다고 해명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환자가 아닌 사람은 구급차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관할 지자체는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고발할 방침이다.

‘불법도박장’ 개그맨 김형인 무죄에 검찰 항소



김형인

2018년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개그맨 김형인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기 때문이다. 서울남부지검이 9일 서울 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에게 관련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11일 알려졌다. 앞서 김형인은 3일 “불법 도박장 개설 이전 투자금 일부를 반환받았다”면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불법 도박 혐의는 유죄로, 벌금 200만원 선고됐다.

OTT 찾타,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생중계

OTT(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가 음악 콘텐츠 확보 경쟁에 나섰다. 찾타가 미국 3대 음악 시상식의 하나로 22일 오전 10시(이하 한국시각) 미국에서 열리는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AMA)를 생중계한다. 안현모 전 SBS 기자가 동시통역으로 진행한다. 올해 AMA에는 그룹 방탄소년단이 아시아 가수 최초로 최고상인 ‘아티스트 오브 더 이어’ 후보에 올랐다. 쿠팡플레이도 세계적인 밴드 콜드플레이의 온라인 콘서트를 독점 공개한다. 콜드플레이가 2017년 내한 공연 이후 4년 만에 국내 팬들을 만나는 자리로, 12월4일 밤 11시30분 생중계한다.

그룹 엔하이픈, 데뷔 1년도 안돼 ‘밀리언셀러’



엔하이픈

그룹 엔하이픈이 ‘밀리언셀러’에 등극했다. 11일 소속사 빌리프랩은 “10월12일 선보인 이들의 첫 번째 정규앨범 ‘디멘션:딜레마’가 가온차트 10월 월간 앨범 차트 기준으로 113만9099장의 누적 판매량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데뷔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거둔 성과여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엔하이픈은 이번 음반으로 지난달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서 11위에 올랐고, 일본 오리콘 주간 앨범 차트 등에서도 정상상을 차지했다.